

이제 풀백 문법 실전 4강입니다.

품사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품사편은 총 3강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워낙 방대한 부분이 이 안에 문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체언 쪽.

그래서 명사하고 대명사, 수사.

수사는 문제로 많이 실현이 안 됩니다.

뒤쪽에 수관형사랑 연결해서는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쪽 공부하고 그다음에 조사 쪽 문제 빈출하거든요.

그쪽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용언.

그런데 용언 문제가 사실 대부분이야.

정말 많기 때문에 용언 문제 전체를 다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하고 그다음 시간에는 용언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품사통용.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도록 하죠.

먼저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렵지 않았죠?

일단 이걸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다시 한번 익혀줘야 돼.

보니까 형태 변화 여부, 그다음에 문장에 수행하는 기능.

그다음에 단어가 지닌 의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품사를 구분할 때 대분류로 뭘 따진다고요?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를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능을 따져볼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미로 따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번 문제랑 곧바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형태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가변어와 불변어, 이렇게 나누게 되죠.

품사 중에서 뭐가 더 많아요?

변하는 게 많습니까?

형태가 변하는 게 많나요, 아니면 형태가 고정되어있는 게 많나요?

형태가 고정되어있는 것이 많죠.

그래서 불변어.

고정되어있는 불변어가 있고 그다음에 변하는 가변어로 이렇게 크게 나눠준다.

이 이야기죠.

그다음에 기능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언, 이렇게 설명하는 그놈들이에요.

총 5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불변어에 해당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체언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또 어떤 거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요?

수식해주는 것들.

그러면 수식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감탄사가 해당하는 거, 독립언입니다.

독립언 여기 들어가죠.

변하지 않잖아요.

형태가 고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일명 관계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죠.

애네들은 사실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가변어에 속하는 유일한 용언이 있습니다.

용언 안에 우리는 동사, 형용사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건데

뭐 하나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죠.

뭐냐하면 가변어의 영역을 따져보면 용언.

동사와 형용사 전체를 다 가변어로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불변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사실 가변어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 관계언 중에서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어.

바로 이다, 라고 하는 놈이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는 다른 조사와는 다르게 활용이 가능하다.

책이다, 책이고, 책이지, 책이니와 같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관계언임에도 불구하고

가변어에 속한다, 이런 거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는 쉽게 이야기하는

~사로 끝나는 9개 구품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쪽 정리를 하면,

체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정리할 수 있죠?

수식언.

주로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

그다음에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가 있죠?

그다음 독립언은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관계언은 조사.

대부분의 조사,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들은 전부 다 불변어.

그러나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용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였다?

동사와 형용사.

1, 2번 문제는 바로 이렇게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잘 알고 있느냐, 잘 적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 2개를 이용해서 1번 답지.

도하고 만.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이 조사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하고 만은 서술격 조사는 아니잖아.

일명 보조사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애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하는 거 맞죠?

2번 갑니다.

이루었다와 그린.

여기서의 그린은 어디에 속해있는 그린이에요?

탁자에 그린 할 때 이 그린.

그린 꽃 했을 때 그린이죠?

그러면 사전에 찾아봤을 때 원형은 뭐다? 그리다.

그런데 이 그리다가 다, 라고 하는 어미 대신에, 그렇죠?

그리다가 다, 라고 하는 기본형 어미.

우리가 사전에 등재되어있는 표제어는 항상 기본형.

종결어미인 다를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대신에 ㄴ이라고 하는 어미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수식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애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

또는 동작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용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이루었다에서 원형은 뭐니까?

이루다죠.

그런데 이루다, 그리는 글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원형에서 활용을 하면서 형태가 변하는 이러한 단어이다.

2번 설명 맞아요.

3번 보면, 부하고 하나는 문장 안에 수식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문에는 두 팔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위의 예문에는 원 하나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애나 그다음에 이놈이나 둘 다 수와 관련된 기능.

수와 관련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두라고 하는 놈은 뒤에 나와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수관형사라고 하죠.

관형사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 수관형사, 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애는 관형사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하나는 말 그대로 수를 세줄 수 있는.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붙어요?

조사를 붙일 수 있죠.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와 같은 몸을 나타내는 체언의 경우에는  
격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격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했어요.

이게 지금 사이에 조사 넣을 수 있습니까?

두가 팔, 두이 팔, 두를 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관형사는 똑같이 수 이야기지만

관형사랑 수사의 차이는 바로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따라서 3번을 보게 되면 수식의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수식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거 위의 거고

하나의 경우에는 수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나무와 꽃은 명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 단어이다.

다음, 넓게와 희미하다는 경우에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걸 형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애는 동작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용사는 상태, 애는 동작.

그런데 이렇게 동작으로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동사의 범위가 되게 좁아서 특정 단어에서 애는 형용사인가,

동작성은 잘 안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과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동사라고 하는 개념을

역동적인 움직임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의 영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여도

정말 조금씩 조금씩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늡다의 경우는 동사에요, 형용사에요?

대표적인 동사에 속하죠.

그런데 늡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동작은 아니잖아.

선생님이 역동적으로 막 늡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노후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동사.

일단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문제로 접하겠지만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해요.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2번도 역시 품사 분류 기준을 가지고 물어봐요.

여기 보기에는 가변어, 불변어, 이런 설명 다 해주네요.

예문을 나눠봅니다.

1번, 형태에 따라 나누겠다.

그러면 두 개로 분류해야 되겠죠?

가변어와 불변어.

그러면 앞에 1번 답지에 보면, 깊다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애는 그러면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가변어에 속합니다.

깊이는 애는 사전을 찾을 때 깊이를 찾으려면 안 되고

깊다를 찾아야 될 단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면 깊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를 쟈 수가 없더라든지 아니면 깊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명사 또는 부사로 쓰인다는 건데

이게 명사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거는 바로 뭐의 기능이다?

이 이의 기능이었죠.

이는 바로 명사화 접미사로도 이가 있고 부사화 접미사로도 이가 있는데

이 접미사는 결국 단어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가 붙었을 때 단어는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품사도 다 새롭게 정해지는 거죠.

이건 활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였다?

예를 들면 깊이 빠졌다와 깊게 빠졌다의 차이를 잘 봐야 된다고요.

기능상 의미는 좀 비슷한 거 같지만 이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가 뭐의 기능? 부사와 접미사이기 때문에

아예 품사 자체가 부사로 결정이 되는 거지만

이때의 이는 뭐의 기능이다?

접미사가 아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성질을 바꿔주는 것.

즉 활용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활용이에요.

어미 어미니까.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어미들이 어간 뒤에 붙을 수 있죠?

따라서 이 깊게는 기능적으로는 꾸며주는 기능은 둘 다 맞지만

애는 부사라고 보지 않고 뭐로 본다?

기본형의 품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깊다 형용사에 해당한다.

이런 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계속 곤란해하면 강의 새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1번 답지에는 뭐의 문제다?

1번에 깊이가 가변어 영역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불변어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또 불변어 쪽에 지금 속해있는 것도 보면 모르다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모르다는 역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변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 두 개가 지금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답지 갑니다.

기능에 따라 나뉘주는 거니까 이 기능은 바로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번 답지.

2번 답지부터 쪽 보면, 2번.

일단 깊다, 모르다를 용언으로 설정해봤나 봐요.

호수, 강, 깊이.

전부 다 뭐로 갑니까? 체언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누구는 어디에 해당해?

대명사에 해당해.

그러면 호수나 강이나 깊이는 명사인테 대명사나 명사는

같은 체언 영역에 속해있으니까 애를 하나로 묶어줘야 되죠.

따라서 2번은 아니야.

3번처럼 함께 묶여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 호수, 강, 깊이, 누구가 전부 다 체언으로 묶인 것이고

그 뒤에 가나 의나 는이나 도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죠?

조사.

즉 관계언에 속하는 거죠?

지금 3번이 적합해요.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단 품사에 따라 나누는 거라고 했으니 벌써 4번 틀렸죠?

깊다는 형용사고 깊이는 아예 명사로 설정이 됩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면 5번도 잘못된 걸 볼 수 있어요, 왜?

깊이가 명사이기 때문에 호수나 강과 같은 명사와 함께 묶여있어야 된다는 거죠.

품사로 따져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우리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그다음 갑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3번 문제는 되게 수월합니다.

이런 거는 외우는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기를 읽고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 있어요.

3번은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의존 명사라는 건 자립적이지 않은 명사.

자립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애는 관형어의 수식을

반드시 요구하는 명사를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것 같은 걸 여기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먹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서의 이 것은 다른 일반적인,

자립적인 명사처럼 조사와 결합 가능하고

조사와 결합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체언으로 보면 되는 거고

또 이것이 대명사나 수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로 보긴 하는데 애는 지금 관형어의 수식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

이걸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존 명사입니다.

지금 보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원래 의존명사 아닌 자립명사인데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기준까지는

여러분이 사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게 이것저것 뒤에 나와 있는 조사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조사가 어떤 게 더 잘 붙느냐에 따라서

주어성 의존명사, 목적어성 의존명사.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의존명사 중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다는 건 좀 알아주세요.

우리나라 말은 다른 나라 말보다

이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게 발달해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포기, 마리, 척, 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앞에 명사 뭘 써야 되는지

예를 들면 오이 한 포기,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야채라고 할지라도 배추를 써야지 오이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마리를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 세 마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동물들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척이나 대 같은 경우에도 배에 대를 쓸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차에 척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의존명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애네들은 의존 명사야.

즉 단독으로 쓸 수는 없죠.

포기가, 마리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몇 마리, 3척.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수관형사가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단위성 의존 명사는 앞에 관형어로 수관형사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보기에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래는 자립명사인데.

즉 이런 놈들이 아닌데 의존명사처럼

수관형사 뒤에 쓸 수 있는 걸 골라보자 이거죠.

그래서 1번 갑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

1번 갑니다.

군데였어요.

ㄱ아니고 ㄱ이죠?

답지에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 군데.

이게 지금 수의 개념이죠, 수관형사 개념이에요.

세 군데, 두 군데 할 때.

그러면 이놈이 자립명사예요, 아니예요?

그건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없애면 된다니까.

없애고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애를 문장 첫머리에 오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 군데가 다쳤다 그러면 군데가 다쳤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면 애는 자립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는 틀린 거죠.

1번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이제 2번부터 가볼게요.

2번, 두 그릇.

앞에 수는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두 덩어리, 두 손가락, 발자국.

애가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릇이 깨졌다, 덩어리를 만들었다, 손가락을 들어라, 발자국이 찍혀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즉 앞에 관형어는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다.

즉 애네들은 전부 다 자립명사인데

마치 이 자립명사가 단위성 의존명사처럼.

이렇게 문장 내에서 수관형사 뒤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합당한 예들이고 애가 오답이죠.

잘못된 거죠.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은 이거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

이 세 개의 기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채나, 채나 이런 것들은 의존명사.

애는 접미사, 이런 차이가 있었죠.

결정적으로 우리 접미사는 당연히 어근에 붙여 써야 되죠.

무조건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존명사는 지금 본 것처럼 어떻게?

떨어서 수식 받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랑 띄어 써져 있을 걸 짐작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의미를 모르면 보기 보고 풀어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접미사니까 당연히 어근이랑 붙여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껌질째 먹었다.

그거 자체를 뜻하는 거죠?

통째로 가져와라.

뿌리째, 이런 식으로 이걸 띄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어근들의 결합되어있는 접미사 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띄어서 쓰게 되는 이 의존명사 채, 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 헷갈려하지 말고 이렇게 꼭 기억해.

의존 명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척이라는 의존 명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체에서 채냐 체냐의 문제 아십니까?

그래서 ㄱ + ㅣ니까 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척할 때의 ㄱ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그러면 예쁜 체 하지마는 체야 체야?

예쁜 척 하지 마랑 똑같은 거죠?

예쁜 체 하지마는 예쁜 척 하지 마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놈이랑 어울리는 이걸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 옷을 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마라할 때

~하는 상태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껌질째로 먹었다 해서 정답은 1번이었던 거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바뀌어야 되겠네.

2번, 나는 앓은 척으로가 아니잖아요.

앓은 채로, 상태로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죠.

3번에 똑똑한 척한다 할 때 척할 때

이 모양이랑 어울리는 체를 써야 되는 거고

4번에 보면, 멧돼지를 산 체로.

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시나 이거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죽은 채 했다.

죽은 척했다, 이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는 5번까지는 서로 뒤집어썼어요.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사실 이게 1학년 문제로 제시가 되었있는 것처럼 쉬워.

그래서 대명사 쪽에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는가를 가만히 지켜보면 다 이런 거.

지시대명사 쪽이 많다 보니까 거리상.

화자에게 멀고 가깝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가볍게 넘어갑시다.

2번이 답인 거 확인해볼 수 있겠죠?

B에서 이것은이라고 했는데 B 문장은 이렇습니다.

영희야,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철수가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가깝다? 철수에게 가까운 거죠.

영희에게 가까운 게 아니죠.

그런데 2번은 뒤집어졌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좀 줄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긴 하지만

이런 구성이 좀 많아요.

1, 2학년 쪽에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하나 정도 풀어봤어요.

6번 가봅시다.

ㄱ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명사 영역에는 사람을 지칭해주는 인칭대명사, 라는 것도 있고

사물이나 장소나 시간 같은 걸 지칭해줄 수 있는

지시대명사, 라는 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들어가면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나, 우리, 1인칭.

듣는 청자 2인칭, 제3자는 3인칭.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또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장소, 이곳, 저곳, 그곳과 같은 장소.

그다음에 이것, 그것, 저것과 같은 사물을 지시해주는 것.

그다음에 언제처럼 시간을 지시해주는 이런 표현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대명사들 말고도 부정칭,

또는 미지칭 또는 재귀칭이라는 것도 신경을 썼어야 돼요.

그래서 대명사들 안에 부정칭과 미지칭과 재귀칭에 대한 정보가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요소였던 말이죠.

재귀칭은 쉬워요.

재귀칭은 지시대명사일 수는 없는 거였죠.

무조건 인칭대명사이고 그리고 그 인칭대명사도 3인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3인칭 대상을

다시 언급하려고 할 때 재귀칭을 쓰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당신이나 아니면 자기, 이런 표현.

철수는 자기가 잘 생겼대.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화초를 아끼셨다.

이런 표현할 때 자기나 당신이라는 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뜻하는

2인칭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문맥상 보게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할아버지 자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높임 표현으로의 재귀칭 당신까지.

이거 두 가지 기억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헛갈려하는 건 이놈이야.

부정칭하고 미지칭.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부정칭이나 미지칭 쪽은 문제가

앞으로 담화 구성 요소에서 문제가 잘 나올 건데

이 문장에서 이 누가가 결국 누가는 누구가가 되는 거니까

누구라고 하는 대명사가 이 안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나 부정칭이냐 미지칭이냐는 몰라.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죠, 질문.

누가 먹었냐? 누가 먹었니? 안 먹었잖아.

이런 의도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먹었니, 라는 의도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어감 다른 거 알죠?

누가 먹었니? 하면 먹은 건 분명해.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궁금해하는 거고 누가 먹었니? 이러면 아무도 먹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요.

결국 뭐냐면, 미지, 알지 못함.

이거 기억하세요.

미지는 알지 못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알지 못함을 궁금해하는 게 미지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 먹었니,

이렇게 나가면 이때 누구는 미지층으로의 누구예요.

그런데 누가 먹었니, 라는 이야기는 모른다는 거.

먹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안 먹었다는 의미.

즉 서술어의 힘이 좀 실려있는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즉 이 서술어 쪽의 힘이 실려있는 이런 부정칭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누구는 바로 부정칭 대명사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6번에 ㄱ 보면,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나

그다음 뒤에 정하지 않는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

정리해봅시다.

ㄱ,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미지칭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ㄱ 다음에 정하지 않는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

그게 부정칭이죠.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부정칭도 미지칭이라는 것도 몰라.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보기를 통해 읽어, 이해해, 풀어.

정확도 떨어져, 시간 걸려.

이게 문제가 돼요.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념 잡고

아, 이거 미지칭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접근하자고요.

1번, 정답이죠.

화단에 있는 저 꽃의 이름은 무엇이나.

그러면 꽃 이름 몰라, 궁금해 해, 미지.

그래서 그 무었은 바로 미지칭이라는 거죠.

2, 3, 4, 5번 다 보세요.

배가 고프니 무엇이랴도 먹어야겠다.

이거 지금 무엇이 궁금한 게 아니라 먹는다는 거야.

먹겠다는 거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다음 3번,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하듯 가다듬은.

그러면 무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언하더라는 거죠.

뭔가를 말하더라, 뭔가를 말하다가 핵심이야.

꿈속에서 무엇을 쫓길 듯처럼.

그 무었이 궁금해?

귀신이지 괴물인지 궁금해?

아니야, 쫓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음, 그는 세간이고 뭐고 뭐 중요하지도 않아.

세간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싹 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 무었을 궁금해하는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10번 문제.

10번 문제가 이거 많이 틀려요.

아마 나도 틀렸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잘 보세요.

ㄱ에 보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대를 찾자는 거야.

이거야.

이 중에 1, 3인칭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저희야.

(가)는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몇 인칭이죠? 복수잖아요, 1인칭 복수.

나를 포함한 1인칭 복수.

애들이 어려서 저희,

우리는 좀 더 구어체로 지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저희들밖에 모른다.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몰라요.

지금 내가 말한 1인칭인데 듣는 사람도 아니고 3인칭 이야기하는 거죠?

3인칭.

정답이야.

애가 정답.

차라리 이런 문제는 1번, 어 정답이네?

이러고 밑에 안 보면 오히려 나올 텐데

밑에 게 또 헛갈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2번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했으니까 지금 궁금해하는 누구는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미지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층이긴 한데 이 대상이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인칭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기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밑에 거 보세요.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는 부정칭이거든.

그런데 부정칭은 인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포함하고 너를 포함하고

제3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칭이 없어요, 이걸.

다 포함되어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두 개를 쓰고 있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이었는데 애는 하나는 아무리 봐도 2인칭이고

애는 인칭이 없으면 답이 안 되는 거죠.

3번 답지 가보세요.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

잘 봐요.

이때 그, 그녀.

이런 건 미국식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몇 인칭 이야기합니까? 3인칭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와 같은 사실에 할 때 이 그는 인칭대명사입니까?

아니죠.

지시대명사.

인칭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에 너희.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난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전부 다 몇 인칭으로 썼다? 2인칭으로 쓴 거죠.

다음 5번, 우리 먼저 갈게요.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전부 다 몇 인칭? 1인칭으로 사용된 거죠.

나를 포함한 복수.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헛갈려하는 건 2, 3번 같은 건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부터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1학년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까요?

8번에 정답 5번이었고,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9번 가보도록 할게요.

9번도 역시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담화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보기를 뭐하러 읽어.

뭐하러 확인해.

보기만 보면 돼.

보기를 봤더니 ㉠입니다.

누가 왔는지 제가 나가볼게요.

아들이 누가 왔는지.

일단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밖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궁금해하는 질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그때의 이 누구는 미지와 부정이야? 미지층에 해당한다는 거죠.

정답 1번.

제가 나가볼게요.

이때의 제가 1인칭이죠?

그래서 1인칭.

그다음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때 누구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미지칭.

다음, 우체부가 물건을 줬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물건을 받아서 확인하더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할머니께서 당신이 손수 말리신 꽃감을 보내셨대.

그러면 할머니께서 당신이 손수 말리신.

이때의 당신은 아버지예요?

할머니께서 네가 말린 꽃감,

아버지가 말린 꽃감을 가져갔다가 다시 소포로 보냈다고?

말이 안 되잖아, 문맥상.

그러니까 이때의 당신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다?

할머니를 다시 지칭해주는 재귀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니가, 네가 먼저 먹으렘 했으니까 역시 2인칭 맞죠?

10번 문제 가봅시다.

보기의 ㉠부터 ㉣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수능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문제가 출제됐었네요?

보면 ㉠에 학생이 이야기하죠.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

그러면 이것은 일단 손에 들고 있는 책 맞죠, 1번 답지.

그다음, 2번.

㉡, 그것 중 하나라는 건 앞서 나온 문장에서

할아버지께서 생일 때마다 보내주신 책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다음,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주셨다.

이때 당신은 역시 선생님 아니죠.

그러면 할아버지, 3인칭 재귀칭으로 쓰인 거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책을 참 좋아하지.

이때 우리 집은 듣는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집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

이때 1인칭이냐, 저희가.

아니죠?

3인칭 재귀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5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재귀청은 무조건 인칭이 정해졌어요.

몇 인칭? 3인칭.

재귀청은 3인칭이에요.

다음, 11번 문제가 2007년 수능인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문제는 요즘에 나오면 더 틀릴 거야, 아마.

그런데 왜 더 틀리냐면, 이걸 선생님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5번 같은 거, 제멋, 판국.

2번에 판국, 이런 단어에 조사를 다양하게 붙이는 언어 활동을 하나?

선생님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언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더 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제는 뭘니까?

명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조사.

모든 조사와 다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극비리와 같은 예를 들면서 극비리라고 하는 이 명사는

이라고 하는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랑 붙기가 좀 힘들다.

극비리에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예랑은 쓰는데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이다와 같이 쓰진 않는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골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미연이에요.

지금 1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조사 예랑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가 아닌 나머지 조사랑 붙여보라는 이야기야.

위에 나와 있는 후보를, 의, 에게, 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이때 미연이라는 단어를 미연이, 사람 이름도 아닌데.

미연을, 미연이다, 안 맞거든.

그러면 1번이 이상하다는 건 느낄 거야.

그런데 2번, 판국.

판국에.

여기 문장에는 이 판국에 내가 나한테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에랑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국을 다른 거랑 붙이나?

판국이, 뭐 하는 판국이.

이상하지 않나?

판국을, 판국이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되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생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헛갈려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모르겠다.

선생님 예문 보세요, 이거 어울려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모르겠다 할 때

판국 전 선생님이 뭐 붙였죠?

그러면 선생님 조사 뭐 붙인 거야?

금방 나와야죠.

인지 아니야.

인지가 무슨 조사야.

뭐예요? 이다죠.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이다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판국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붙을 수 있는데

어간은 딱 여기까지일 거 아니에요.

활용이 되는 거죠?

기본형인 다를 버리고 니지.

다른 거 한번 가볼까요?

그가 온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온지 몰라다.

띄어 쓰면 안 돼.

이거 띄어 쓰는 경우에는 뒤에 시간 정보 나와 있을 때

온 지 한 시간 넘었다, 이러면 그때 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지 몰랐다, 온지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잖아요.

어간인 오에 ㄴ지를 붙인.

이 ㄴ지는 똑같은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 서술격 조사 이다도 어미랑 붙을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놈인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판국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갔는데 어울렸잖아?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붙는 게 가능해요.

물론 판국이, 판국을.

이런 거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선생님도 직감적으로 느껴.

**3, 4번은 잘 버렸을 것 같아, 왜?**

덕분이에요, 이런 거.

선생님이 덕분이에요.

그러면 덕분이다, 이런 거 붙이잖아요.

또 **4번**, 순식간에가 지금 쓰여있는데 순식간의, 순식간이다.

이렇게 뭐 하는데 순식간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5번**, 제멋이라는 단어 어떻게습니까?

지금 문장에서는 제멋에 산다.

이렇게 해서 에를 붙여놓은 건데 에 말고 다른 거 넣어줘야 되잖아.

제멋이, 주격 조사 이상해.

제멋을 찾는다? 목적격도 이상해.

제멋의, 관형격도 이상해.

그런데 제멋이다, 어때요?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겨울에 반팔티를 입는 것도 제멋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있다고.

있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언어습관의 문제인데 결국 뭐냐면,

그 당시 2007년도 수능에서 출제위원들이 다 어르신들이니까, 교수님들.

그래서 이런 거 제멋이다 많이 쓰지 하고 냈고

검토진으로 들어간 선생님들도 이런 거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하고

검토 OK 했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어색하다는 느낌으로 헛갈려했었던 거고

지금은 아마 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 뭐가 있나요 하고 미리미리 찾는 건

그렇게 공부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역시 이런 기출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유심히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이제 조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애는 지금 핵심이 뭐예요?

가를 선택할 거냐 는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미 답지 보기에

가나 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줬습니다.

이 문제 핵심은 사실 이거 같아요.

는은 언제 쓰느냐.

는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보조사죠.

선생님, 격조사 아니에요?

은, 는, 이, 가.

그러면 강의 들어야 돼.

그래서 는은 아주 대표적인 보조사인데

이 보조사가 어떠한 뉘앙스를 갖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뭔가 화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강조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 중에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ㄱ에 보게 되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왜 한 할아버지는 살고 있었다, 라고 안 했느냐,  
이건 지금 처음 나오는 정보예요.  
우리 눈을 쓰는 이유는 어떤 격조사가 왔을 거란 짐작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또 눈도 써주고 하는 건데  
처음 문장부터 이 사람을 이야기해주려고 할 때  
그때 눈을 쓰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번 설명은 바로 그거예요.  
처음 이야기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를 일단 써주고  
그다음 반복해주면서 할아버지의 행위를 반복한다,  
할아버지의 생각을 강조한다든지 할아버지의 행동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다면 그때 눈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이때 왜 할아버지가 안 쓰냐.  
이미 앞에 문장에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아버지가 좋아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거든.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좋아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앞서 나온, 문장이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이 사람이 주어가 되는 화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계속 써주는 거죠.  
다음,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그러나 돼지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왜 돼지들이라는 목적격 조사보다는 눈을 쓰는 게 어울렸겠느냐,  
앞쪽에 좋아했다는 대상,  
귀여워했다는 대상과 대조가 되는 뉘앙스를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3번 설명이 좋아요.

그다음 ㄹ, 할아버지에게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에서 는을 쓰는 이유가

앞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는을 썼다.

지금 뜻을 읽어보면, 만약에 그러나 돼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라고 했어도

할아버지에게는을 쓸 수 있어요.

즉 싫어했다는 내용이 는을 결정짓는 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서술어를 바꿔봄으로써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㉔ 부분에 보게 되면,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물과 달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달랐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는을 쓰는 것도 어울렸다.

이겁니다.

13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해 탐구 학습을 했어요.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그냥 넘어가봅시다.

1번, 께서, 예. 각각 주어나,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라고 했어요, 일단?

조사에는 세 가지 있죠.

격조사 있어요, 접속 조사 있어요, 그다음에 보조사 있어요.

보조사 외울 거예요?

못 외워요, 양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문제를 풀면서 좀 대표적인 보조사.

는, 도 이런 건 눈에 익잖아.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고

일부러 내가 외워야겠다 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우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격조사를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격조사가 아니네.

그렇다면 보조사.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조사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격조사만큼은 정확하게 외워주자, 라는 거죠?

격조사는 종류 7가지 있습니다.

주격조사 이, 가, 께서, 에서.

에서 같은 경우는 단체 주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였죠?

주격조사 이야기했습니다.

목적격 조사 을하고 를 있죠.

관형격 조사 누구누구의 할 때 의.

선생님이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안 써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요.

내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

이러면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의에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접근을 하니까요.

지금 주격, 목적격, 또 관형격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보격도 있었죠.

뒤에 되다나 아니다가 나왔을 때 형이 무엇이 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이 무엇이 아니다 이러면 그때 두 번째 나오는 무엇이 아니다, 되다 할 때

그 무엇이가 보여 자리고 그때 이나 가가 보격 조사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호격이라는 거 있죠.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호격조사.

그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있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건 7종류의 격조사 중에

나머지 6종류는 좀 간단해요.

금방금방 외워질 거고.

그런데 특히나 이 중에서도 부사격 조사 양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걸 외워주면 정말 조사 문제는 편하게 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사격 조사만 정리해볼까요?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출발점, 처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소 개념인데 처소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

되게 기초적인 거.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 이런 표현들.

물론 이러한 조사들이 반드시 처소 방향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그런데 부사격 조사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종류는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상이 있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에게 주었다, 라고 할 때 에게.

높임도 있죠.

~께도 있죠.

그다음에 잘 안 외워지는 걸 노란색으로 하면,

이거 맨날 헛갈려하던 말이야.

이거 보조사인가 이런 거 헛갈려하는 거 있는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대상이니까 ~한테, ~더러, ~보고 오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거는 잘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까지 챙겨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종류 있어요?

잘 외워야 되는 거 비교부사격 조사.

이거 잘 외워야 돼.

이거 중요해.

문제 잘 낼 거예요.

보조사랑 비교부사격 조사랑 맨날 출제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교부사격 조사 뭐 있습니까?

~만큼, ~보다.

~보다 ~하다.

~같이 ~하다, ~처럼 ~하다 할 때는

이거 지금 대상이랑 비교해주는 거 맞잖아요.

이 4개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애네들이 뉘앙스가 웬지 있어 보이니까

보조사처럼 헛갈려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다음요.

자격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수단과 도구 같은 걸 이야기하는

어떤 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로서랑 로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격이면 로서, 그다음에 수단 쪽으로 가게 되면 로씨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인용 표현 이야기할까요?

인용하게 되면 우리 간접인용, 직접 인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랑 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반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거.

와, 과, 량, 하고 이런 놈들.

애네들은 또 이런 접속조사랑 헛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챙겨줘야 되겠고.

그래서 진짜 이거 잘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이 틀린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과나 와 같은 경우.

우리가 알잖아.

이나 가, 을하고 를, 와/과.

이게 구분되는 이유는 뭐야?

앞에 받침이 있냐 없냐 이거로 결정되는 거죠.

소가, 말이, 소와, 말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4번 답지 와나 과나 앞말의 의미 아니죠.

앞말의 음운환경.

아니면 앞말의 형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줘야 맞아요.

그다음, 14번 가보도록 해요.

이건 문맥 읽어보면서 확인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4번에 1번 답지 가볼게요.

그 ㄱ을 포함하는 문장.

나는 사촌 동생들과 저녁 때까지 신나게 뛰어놀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함께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1번, 도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는 보조사야.

보조사인데 목적격 조사가 뭐가 있어?

을, 를.

그래서 이 자리에 을, 를을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축구를 함께 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도는 목적격 조사 자리에 대체하고 있는 보조사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2번 답지, ㄴ을 보니까 평소에도예요.

그런데 이 도가 다른 조사와의 결합?

그러면 평소 그리고 뒤에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그 뒤에 붙어있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 뒤에 다른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했고요.

다음, ㉠ 보니까 문맥에 보면 할머니께서는 반찬도 먹으라며 나무라셨다.

이때의 도가 놀라움의 감정이야?

반찬도 먹어라, 왜 이게 놀라운 부분이지?

전혀.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금 이 손주에게

나물 반찬이 많아서 밥만 먹고 있으니까 반찬도 먹어라.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반찬까지 포함, 이런 개념이죠.

이것도 더해져서.

그래서 놀라움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에는 이 도가 두 가지의 동등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깎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고구마를 먹긴 먹는데 깎는 동작과 굽는 동작  
두 가지가 동등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개념으로 도를 지금 쓴 거죠.

그다음에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버렸다.

그런데 앞 문장에도 보면 씻기는 커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했다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는 도에서 더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번 가봅시다.

15번은 아예 문두에 으로의 뜻풀이 일부,

으로의 용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으로는 이놈이잖아요.

선생님이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조사들을 다 써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했던 거긴 한데 지금 가만히 보셔도

이 으로에 대한 문제가 ㉠ 보기 1에 보면,

변화의 방향, 움직임의 경로,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

뜻은 사실 다양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

묶어줘서 외우려고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으로가 왜 ㉠으로 쓰입니까, 원인, 이유로 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면 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다.

이거는 변화의 방향이 맞는 거 같죠?

훌륭한 사람이 목표가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 움직임 아니고.

또 원인, 이유 아니잖아요.

A는 ㉠입니다.

B, 인간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거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인간으로.

여러분, 이거 인간으로를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바꾼다면 어떻게 쓸래요?

인간으로써예요, 인간으로서예요?

인간이라는 자격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개념이지.

그러면 인간으로서인데 결국 이 으리가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한데

선생님, 보기 1이 없는데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냐, 학생들이 힘들어하느냐,

지금 반드시 A, B, C, D, E가 ㉠부터 ㉤까지 중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궁창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답지를 가만히 보시면, 5개에 있는 게 있지만

4개, 3개 있는 게 있어요, 1, 2번.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의 으로는 자격의 개념이지

변화, 방향, 경로, 이유, 원인 아니었던 말이야.

그래서 B가 없어요.

지금 들어간 게 없죠?

이제 C를 가보면, 병으로 돌아가셨대.

그러면 이거 원인, 이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 해당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거 움직임 경로잖아.

그러니까 ㉤에 들어가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가난이라는 이유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인과 이유 ㉤.

그러면 정답은 2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는 보기 2에서

B에 대한 고집을 버리냐 안 버리냐의 문제라고 봐요.

16번 가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격 조사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보게 되면 누구를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 라고 했습니다.

목적격 조사 줄여 쓸 수 있네요.

다음, 2번에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그런데 이 사과를 좋아해가 사실은 좋아하는 대상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과를 좋아해 할 자리에 는이 온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좋아해, 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는이라는 보조사가 목적격 조사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 설명 그 이야기고요.

3번에 보게 되면 ㉡, 나는 너만을 좋아해, 너를 좋아해.

그러면 목적격 조사에 있는 를 사이에 만 같은 거 들어갔네요, 보조사가.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부사격 조사 와를 목적격 조사로

바꿔쓰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문장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길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더 넣어줘도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이 차이죠?

선생님이 이거 동반 기능일 때 접속조사랑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판단하는 방법은 너무 쉽잖아요.

지금 와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

그런데 이때는 서술어를 먼저 신경 쓰는 거예요.

만나다, 라고 하는 서술어.

누구랑 누구 만나는 거죠?

이거죠.

A하고 B하고 만나는 겁니다.

나하고 영수.

둘 중에 뭐가 부사격이다? 위에 거.

애는 그러면 뭐? 접속조사.

얼마나 쉬워.

즉 사이에 끼 있으면, 관계에 있는 두 대상 사이에 끼있으면 접속조사.

관계에 있는 대상,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거면 부사격 조사.

와, 과, 량, 하고 이놈들은 쉬워요.

그래서 이놈은 부사어.

왜? 부사격 조사 붙어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부사어.

이놈은 부사어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애는 접속조사이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그래서 애가 하나의 구를 이룬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의 결정되는 건데 만났다의 주어 자리가 사실 와야 되죠?

영수와 내가 만났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역시나 는이라는 보조사가 나와 있지만 원래 이 자리는 가 자리잖아.

그러면 애는 묶여서 주어라고 하는 거지 애만 격을 따지진 않아요.

접속조사니까 격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금 보면 영수와 만났다.

나는 영수와 만났다는 와가 분명 부사격 조사가 맞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영수를 만났다.

목적격 조사로 오게 할 수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을 보게 되면, 한 문장 안에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나오더라도 생략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책을 열 권을 주셨다.

책을 열 권을, 목적격 조사 두 번 나왔죠?

왜 불가능하죠?

책 열 권, 책을 열 권 주셨다.

한 번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목적어 구문일 때 목적격 조사를 한 번 정도 생략하는 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17번 문제인데 17번 문제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다, 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의 기능 맞죠?

그래서 여기에 이다를 이것저것 활용한 상태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앞에 적용을 좀 해보셔야 돼요.

먼저 1번, ㄱ을 보니 형태가 고정되어있지 않다, 용언처럼 활용한다.

㉠ 문장은요? 책이다, 책이니, 책이면.

다른 동사나 형용사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먹다, 먹으니, 먹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책이다, 책이니, 책이면.

이렇게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번 가보죠.

㉠을 보면, 앞에 붙는 말에 받침이 없으면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지금 ㉠에 헤엄치기이다를 헤엄치기다로 갖는데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헤엄치기에서의 기가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빼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3번을 보게 되면 ㉡과 ㉢을 봤을 때 체언, 용언의 어미는 조사 뒤에 붙는다.

이 문제를 잘 풀려면 3번 답지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체언도 잘 알고 용언의 어미가 뭔지 알고 있고

조사 어미 개념, 부사 개념.

다 알아야 사실 3번 답지가 편하게 넘어가죠.

가령 ㉡의 예문은 전부 다 책이라고 하는 명사.

즉 체언 뒤에 붙어있는 거죠?

다음, ㉢에 보면 가까워서 더하기 이다인데

가까워서는 가깝다의 어간인 가깝에 어서라고 하는

연결어미 뒤에 이다가 붙어있어요.

지금 용언의 어미 뒤에 붙어있는 건 바로 가까워서이다를 예를 든 거예요.

다음, 나부터 이다는 나 더하기부터는 이미 조사인데

그 뒤에 이다가 붙어있죠.

그래서 다른 조사 뒤에 붙었고 먼저는 부사죠.

먼저 먹어라와 같이 먹다고 하는 용언을 꾸밀 수 있게끔 먼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 뒤에 붙어있는 이다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전부 다 예문을 판단해보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번을 보니까 ㉣과 ㉤을 보니 자립성 있는 단어와 결합할 때

주어가 생략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자립성이 있냐 없냐는 질문은 뭐 이야기하는 거죠?

자립 형태소냐 아니냐죠.

관형사나 부사는 자립형태소예요, 아니예요?

즉 예를 들면 ㄴ에 나와 있는 먼저 이다가

먼저라고 하는 부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붙인 상태잖아요.

그거 확인했죠?

만약에 4번이 맞다면 이 먼저가 자립성이 없는 단어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립성이 없는 단어이니까

주어가 지금 붙어있는 상태다, 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라고 하는 이 부사는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립성 판단은 뭐로 하는 거냐,

띄어쓰기 유무로 판단하는 거예요.

띄어쓰기 가능하잖아?

그러면 애는 자립성이 있는 거야.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자립형태소 이야기하면 먼저라고 하는 건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수식 받는 놈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예요.

우리 형태소 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지만

자립형태소 개념은 띄어쓰기가 가능하냐 아니냐예요.

알겠죠?

따라서 4번은 잘못된 거야.

지금 예를 들면 먼저 같은 경우에는 자립성이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생략되어있지 않아요.

5번에 다른 말들이 붙어 서술의 기능을 갖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이다입니다.

18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보조사 18번 문제 봐 봐.

6월 평가원이예요.

이 보기를 보고 보조사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애가 격조사인가, 보조사인가 이려고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 정답이 3번이잖아요.

왜? 한테를 알고 있으면.

한테가 무슨 보조사야, 정답 3번.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외우는 되는데.

1번에 만, 2번에 은, 4번에 도, 5번에까지.

이게 보조사예요.

물론 선생님이 이것도 보조사, 라는 걸 알아요.

왜? 문제를 풀면서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격조사를 외우는 게 더 우선입니다.

19번도 마찬가지로 아십니까?

보조사가 뭐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닌 걸 고르는 거잖아요.

5번처럼.

지금 18번, 19번을 이거를 아는 거.

다른 거로 내지를 알아요.

이 부사격 조사 쪽이 보조사랑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에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우자는 이야기야.

지금 벌써 18번, 19번은 알면 금방 풀잖아.

20번 가봅시다.

20번 보게 되면, 정답 4번.

종결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한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마지막 문장에 마음은요,

이러면 마음은, 이게 아니라 마음은요, 라고 해도

이미 상대방을 존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종결어미 뒤에만 붙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용보조사.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 보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제 21번,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 2에 A부터 D 중에 많은이 들어가야 될 거를 보자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런 건 외운다기보다는 적용하는 게 좋아요.

보기 1에 보면, 맑은은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라고 되어있어요.

다음, 밑에 맑은은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과 조사 뒤에 붙는다고 했어요.

이제 이게 구분점이에요.

먼저 갑니다.

제일 빨리 지울 수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예문 C입니다.

왜? 봉오리에 맺힌 가지는 명사, 곧 체언이죠?

따라서 종결어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맑은을 써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일단 C를 제일 먼저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첫 번째 A를 보면, 여행을 가서인데

여행을 가서는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봐야 될 거죠?

더하기 아서고, 다음 B 부분에 그냥 간다마는, 다음 되겠느냐마는.

핵심의 문제는 이거죠.

당연히 명사니까 가지를 지우는 건 먼저 하셔야 돼요.

애랑 애랑 애 중에서 종결어미 찾는 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종결어미.

이거는 어미를 잘 아느냐의 문제죠.

이거는 연결어미.

이거는 평서형.

이거는 의문형 종결어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 뒤에는 얼마나 되겠느냐마는.

내가 곧 간다마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는 가서, 거기에 가서맑은을 써줘야 된다.

조사 은, 만과 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걸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1번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용언편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잘 풀어오시고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